

충청남도 농촌체험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인배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 문제의 제기

우리의 농촌은 농가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농촌사회가 공동화되고 있다. 농가인구 비율은 1965년 55.1%에서 1990년 15.5%, 2000년에는 9.7%를 차지하고, 50세 이상 고령 농업인구가 전체의 75%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본격적인 여가시대를 맞이하여 농촌은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농촌관광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발전의 방법으로 농촌은 도시민에게 휴식 휴양과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민은 민박, 농산물 구입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침체되어 있던 농촌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일부 농촌관광을 추진하여 성공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일부 지역에서 농촌관광을 추진하여 성공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농촌관광이라는 새싹이 자라는 중이며, 농민들의 자각, 도시민의 여가의식 성숙,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2002년에 18개 마을, 2003년에는 26개 마을, 2004년에는 32개 마을 등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 활동 등 농촌관광의 붐을 일으켜 도농교류에 의한 마을의 소득증대는 물론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충청남도는 2002년에는 서산 오학리, 보령 신대3리 등 2개소, 2003년에는 홍성 문당리, 예산 귀곡리 등 2개소, 2004년에는 아산 외암리, 부여 거전리, 당진 삼웅2리, 홍성 매현리, 금산 명곡리, 보령 대창4리 등 6개 마을이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홍성의 문당리는 환경농업마을로 2003년 마늘가꾸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태안 율가리마을과 금산 홍도마을은 장려상을 수상하